

함평 엄다초등학교, '책가방 없는 날' 운영

자전거 타기·등산하기 등 도전과제 선정

한 달간 준비 기간... 책가방 없는 날 진행

함평 엄다초등학교 학생들이 4월 12일 책가방 없는 날을 맞아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과제를 직접 도전하는 경험을 하였다. 학생들은 전교 다모임에서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실천하지 못했던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전거 타기, 등산하기, 암벽등반, 인라인스케이트, 도미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중 자전거 타기, 등산하기, 단체 도미노 작품 만들기를 도전과제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자전거타기와 등산팀으로 나누었고 자전거타는 라이딩을 위해 평소 중간놀이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하였으며 등산팀도 걷기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키웠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책가방 없는 날이 왔다.

등산팀은 함평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산봉에 올랐다. 저학년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상까지 잘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학생들은 가볍하게 등산을 마쳤다. 정상에 올라가 간식을 먹은 후 자전거타기가 나비공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환호했다. 등산에 도전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정상까지 올라오니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다음에는 더 높은 산까지 올라가 보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자전거 라이딩은 자전거 수리부터 코스 선정까지 준비할 것이 아주 많았다. 엄다초등학교 근처의 벚꽃터널을 지나 함평천을 건너 나비공원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했다. 학부모님, 선생님 모두 함께 라이딩을 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챙겼으며 안전차량도 함께 학생들의 앞과 뒤에서 안전한 라



이딩을 도왔다. 자전거 라이딩에 도전한 학생과 학부모는 "친구들이랑 같이 함평 나비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너무 재미 있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자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함평천을 달리니 너무 행복했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도전과제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강당에 모여 두 번째 도전과제로 '도전하는 엄다초' 단체 도미노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에 학생들은 진지하게 참여하면서 서로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미노 쌓기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며 완성되는 글자를 보며 참여한 모두가 와! 하는 탄성을 지아냈다.

엄다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어려운 과제를 만나더라도 도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멋지게 극복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함평=김광준 기자



전남창의융합교육원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창의 융합교실' 운영

소규모학교 초·중학생 대상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3월 22일 안도 고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의융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창의융합체험활동과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탐구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창의융합교실'은 4월 12일 장성 약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창의융합교육 체험의 장을 열었다.

초4~6학년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사물인식 코딩로봇체험, 휴머노이드 모션싱크로봇체험, 가상현실 VR체험을, 오후에는 마우스 트랩가를 만들며 탄성과 운동에너지를 배우는 과학 탐구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초1~3학년 학생들에게는 최신형 4D 체험 차량을 이용한 4D 입체영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4학년 학생은 "VR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너무 실감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조종하는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미니축구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사람을 인식해서 따라다니는 로봇은 정말 신기했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박병인 교사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창의융합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흐뭇하다.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김성희 원장은 "전남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창의융합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찾아가는 창의융합교실'은 연간 30회를 목표로 농어촌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탐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화순오성초, 온라인 설명회

화순오성초등학교는 '소통, 배려, 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화순오성교육'이라는 주제로 2022학년도 1학기 온라인 학교교육 설명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교육 설명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절된 화순오성교육가족과의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3월 29일 오후에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담임 소개와 학교현황, 학사일정과 학교교육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들을 조사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교권보호, 학교폭력예방교육, 정립교육 등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필수 연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학사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온라인 학교교육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는 "코로나 19로 인해 걱정하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학교와 소통할 수 있어서 더욱 더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한해도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대 미래융합대학 '전남 동부권 평생교육 포럼' 개최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최근 학내 70주년 기념관에서 '전남 동부권 평생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학-지자체 간 평생교육 상생 방안'을 주제로, 전남 동부권 소재 대학과 지자

대학·지자체 간 평생교육 상생 방안 논의

체 간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하였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위해 순천대 미래융합대학 유튜브 채널 '라이프'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였다.

순천대 미래융합대학 김도균 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양병찬 교수가 '지역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순천시 평생교육과 양효정 과장은 '순천, 평

생학습도시 20년을 준비하며 다시,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생각해 보다'라는 주제로, 순천대 산학협력단 부단장 심현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과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양병찬 교수를 좌장으로,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김소라 교수, 양효정 과장, 순천제일대 평생교육원장 최진숙 교수가 참여하여 지역대학-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공공도서관, '동네 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영광 한길서림·이음박스 협업

영광공공도서관은 지난 12일부터 영광 지역 협약 서점 2곳(한길서림, 이음박스)과 '동네 서점 바로대출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비스 첫 날 영광공공도서관 등 직원들은 2곳 서점을 방문하여 직접 고른 책을 모아

일을 통해 신청하여 대출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영광공공도서관은 대출 권수 한도를 1인당 7권에서 10권으로 조정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공공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영광공공도서관(☎061-351-



2693)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